

大學院 教科課程 改編에 의한 純粹造形에 따르는 表現技法의 研究

平面의 實在的 抽象에 의한 韓國的 이미지의 表出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美術大學

丁 昌 變

目 次

1. 序 論
2. 本論(圖版)
3. 結 論

序 論

오늘날 서구 중심의 現代 美術의 진행이 文化
圏이 다른 개체 민족의 미술에 끼친 가장 큰 영
향중의 하나는 指向性의 유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끊임 없이 개별 민족적 美感에 의한
고유 가치 의식과 서구 중심의 국제 주의적 普
遍指向의 어느 쪽이 창조의 주체 세력일 수 있는가에 대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거나와 이러한 시점에서 본인은 우선 전통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해석, 그리고 그 이미지에 의한 재구성 및 현대적 계승 문제를 자신의 주된 조형상의 추구점으로 일관해 왔다. 그리하여 재래적 虛構 空間으로부터 脱皮하여 평면의 繪畫的自律性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知的 사고와 행위의 흔적을 통하여 전통 개념과 韓國의 이미지의 명묘한 아름다움과 그 실체를 표출해 보려 하였다.

그러나 本人은 여기서 전통 개념을 어떤 特定의 時空 속에서 이미 先驗的으로 완결되어진 가치 체계로 인식하려 들거나, 民族主義的 이데올로기 밑에 세습적으로 묶어 두어야 할 고착된 遺物로서가 아닌 時代性에 맞게 무한 확대 계승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며 추상에 의한 한국적 이미지의 표출이라는 뿌리깊고 실험성이 강한 本人의 일련의 작품들은 모두 이런 관점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들이다.

즉 이런 本人의 創作 意志와 잠재적 비전이 평면상에 知的, 心理的 心像의 흔적을 이루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 화면에 서구적 콘테스트와 그 일방적 영향권으로부터 탈피한 독자적이고 한국적인 이미지와 精神性이 융해되고 구현되어 질 수 있도록 부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형의 제작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디까지나 이것이 생경하거나 작위적이지 않고 또한 제작 프로세스상의 의의성이나 우연성에 의한 개연적 효과의 진로를 차단하거나 방해하지 않은채, 화면의 자율성과 회화성에 입각해 영상적 아름다움과 세련도를 共時的으로 획득하면서 이미지 측면은 그 속에 융해되어 視覺 心像 속에 자연스럽게 이차적으로 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바르기와 긁기, 치우기에 의한 일루조 효과와 같은 질량적 기법을 억제하고 피하여 벤지기와 훌리기에 의한 <시간>의 투명한 경과와 그 흔적, 침투, 유동, 소멸 등의 요소를 주시하고 추적하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기법과 방법이, 의도한 정신성의 구현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의 제작에서 本人은 특히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발랄한 실험성을 추구해 보았다. 즉 평면의 실재성에 의한 한국적 이미지 표출에 보다 적합한 재료를 발굴하기 위하여 마티에르와 색채 선정 및 그 구사에 각별히 유념하

였으며 현란한 색채주의를 배제, 非色的 요소로 거의 담담한 水墨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색 공간의 도입 또한 이런 의도로부터 기인된 것이며 백색공간 그 자체가 하나의 <재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산문적인 정신 공간의 구성과는 그 궤를 달리하여, 거의 Automatic한 행위 측면이 강한 Drawing에 의해, 최대한 압축된 조형 정신의 구현을 피해 보려고도 시도하였다.

減筆에 의한 직재적이고 일회적인 이드로우잉 작업으로서 本人은 또 다른 성격의 행위와 사고의 二元의하면서도 明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고와 행위의 군더더기 없는 집약적 표출과 그 순간적이면서도 긴밀한 유기적 결속력의 직재적 표출 방식이야말로 직관적 동양 정신과, 단순 소박하고 솔직 꾸밈 없는 한국적 미의식의 표현에 걸맞는 양식으로 사료되어 本人은 이번의 몇몇 작업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장르를 발굴해 보려 한 것이다.

結 論

本文에 수록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本人은 거의 東洋의 生成 원리와 한국적 이미지의 기호 체계와 메타포어로서의 「環」이나 「十二支」 또는 「歸」 시리즈에서 보였던 의도적 표제 의식을 한 총 자유롭게 풀어서 그의 역도된 원소적 이미지들만이 화면상에서 자연스럽게 視覺 心像 속으로 환원 되기를 바랬다.

그리하여 의도화와 선입견이 작용될 수도 있는 표제의 「구속력」과 「긴장감」을 최소한의 상징으로 처리한 채 거의 자유 표제 상태로까지 나아가면서 元素的이며 流動的인 최소 단위와 기호 단으로서 韓國的 이미지가生成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즉 평면의 실제적自律性을 존중하면서 거의 무식적으로 전 작업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색과 행위의 만남, 또는 그 二元的 결합을 통하여 韓國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表出될 수 있도록 고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기법적으로 면 중심의 기하학적 분

활이나 덧칠하기와 같은 제작 패턴에 의한 질론적 공간구성을 포기하고 주로 훌리기와 번지기 등에 의해 의식의 분방함과 사색의深度, 행위의 극명한 혼적등이 자연스럽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화면에 구성력이 강한 白色 공간을 도입하여 精神의 깊이를 더하기도 하고 색채의 과감한 번짐과 침투로 發墨과 破墨의 효과를 노리기도 하였으며 우연성이 강한 일차적 평면 위에 의도화한 이차적 평면이 離合, 集散 意識과 無意識의 二元의 번주와 만남을 주시하였다.

즉 재래의 物質的 질량 공간에서는 극명하게 만나질 수 없었던 이 시간성의 문제 암말로 우연과 필연,合理性과 非合理性 靜과 動, 意識과 無意識과 같은 情意의이며 行態의인 요소들을 精神性으로 환원, 歸一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본인은 여기서 현란한 색채 구사를 가급적 억제하려 하였으며 색채에 의한 일차적 시각과 이미지의 차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를 知性에 의해 제어, 조절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마치 한지에 번지는 텔빛의 음력과 효과 및, 詩性과 명료한 사색의 심도를 共時的으로 혼연시켜줄 수 있는 화면을 이루려 한 것이다.

그러나 脫 서구적이면서 동시에 水墨에 의한 中國風의 文人的 寫意 취향이 지니는 취약한 회화성을 극복하고 그 봉건적 매너리즘과 혐쇄성에 합물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時代性에 충일한 現代화화의 본령과 精神 속에서 무리없이 韓國的 전통 의식과 이미지가 세련된 造形 감각 위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고심한 것이다.

지금껏 필자가 어느 정도 표제성이 강한 일련의 시리즈를 제작해 왔던 것도 그 출발이 바로 이런 확고한 나름대로의 조형 의지에 두고 있었던 것이 물론이지만 이제 그런 제작의 연륜을 토대로 하여 보다 차원 높은 우리 미술의 現代的 수용과 계승을 주도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본인은 <드로우잉>을 통해서 필선의 구사에 의한 명쾌한 정신성의 구현을 십분 추구할 수 있었다.

즉 기왕의 평면에서의 散文性을 최대한 압축, 간략 소박한 筆線으로 生命力과 作家의 손길이

닿는 운동태 및 그 숨결을 화면위에 그대로 살려냄으로서 東洋的 직관의 세계를 구현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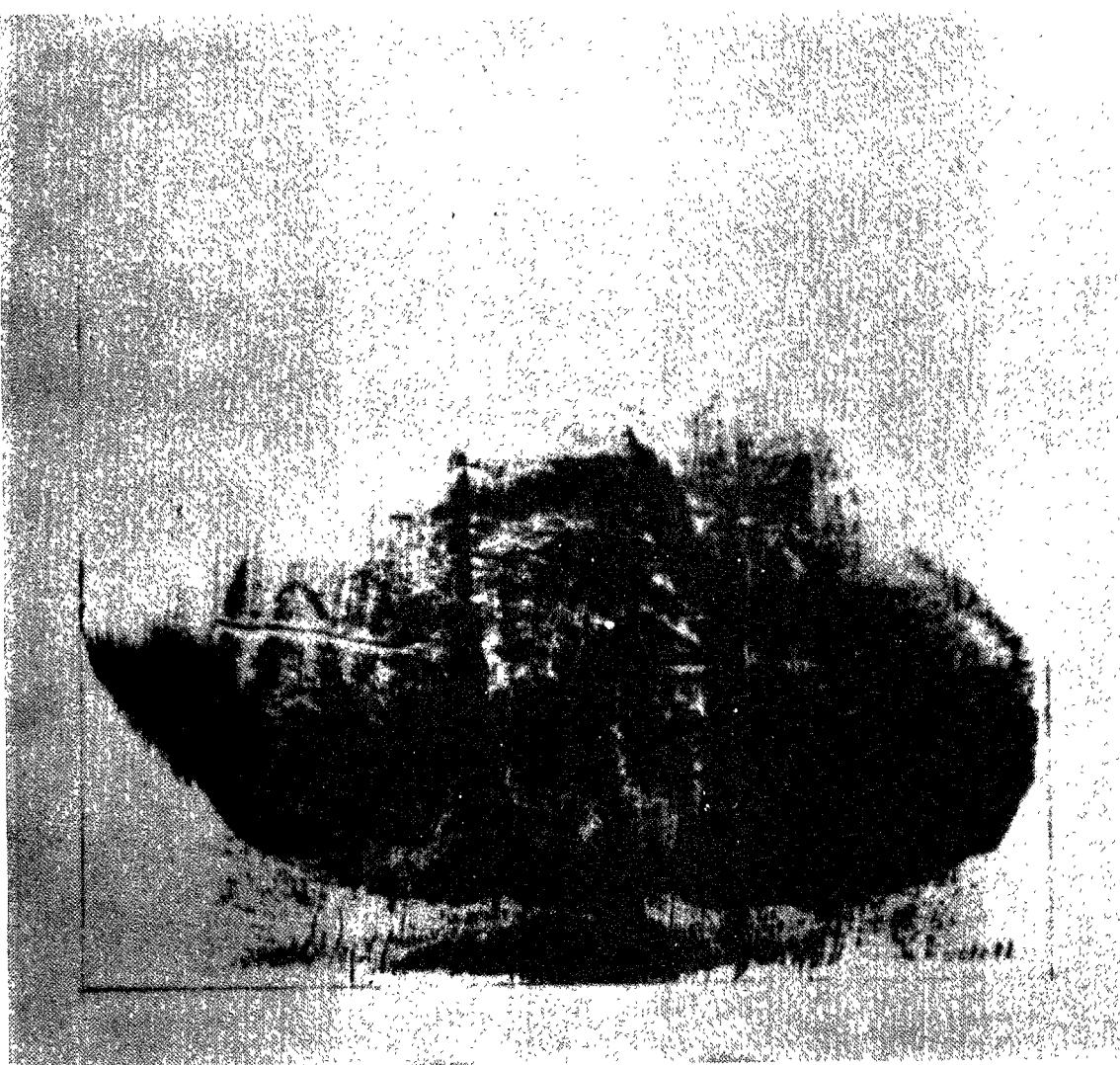
또한 재료로서는 다른 굽기가 마대나 아사천, 한 지등에 먹이나 아크릭 칼라 등을 거의 투명한 경지에서 풀어 써 보기도 하고 순차적 濃淡 조절에 의해 배후색이 그대로 살아나고 은은하게 덮이거나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生成, 流動 소멸의 순환원리를 적용시키기도 하였다.

드로우잉 작업에 와서는 단일색으로서 筆勢와 運動態 時間差 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행위의 變化와 時間的 측면에 주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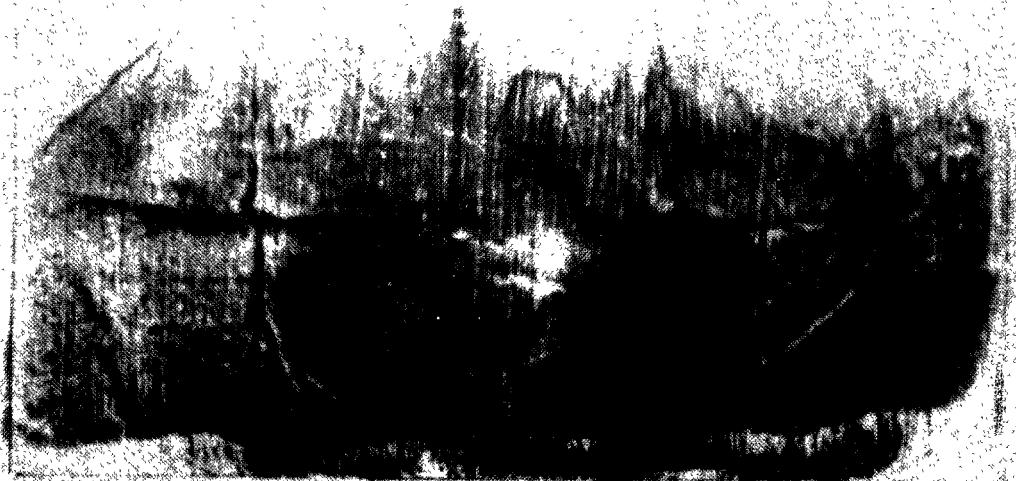
그간 지속적으로 知的 화면, 心理的 화면에 의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용해되어 있는 韓國人의 미의식이 時代的 狀況 속에서 抽象 表現으로 결속되고 만나질 수 있도록 고심해 왔던 本人은 이런 뿌리 깊고 확고한 지속적인 추구를 통하여 조형적 식민 의식을 벗어나서 우리의 무궁한 精神的 자원과 전통적 美感을 계속 계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결국 時代 감각에 맞는 한국적 表現 의지와 전통의식만이, 국제적 보편성과 보다 넓은 場에서 만났을 때, 우리 회화의 특수성을 용인 받을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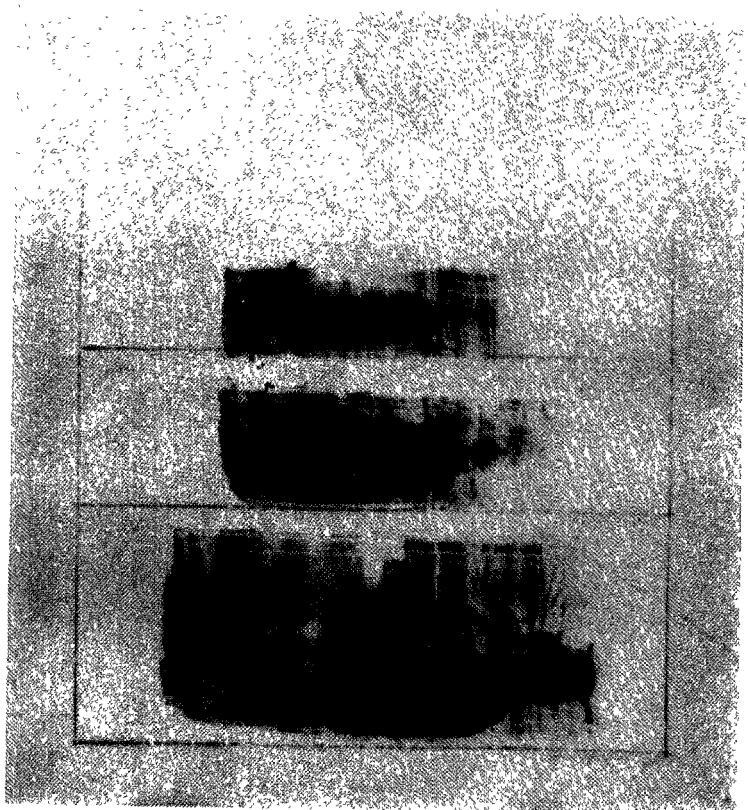
作品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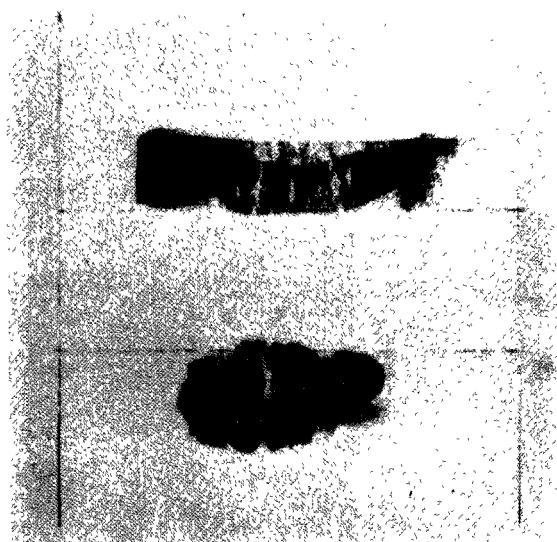
(Drawing I) 종이,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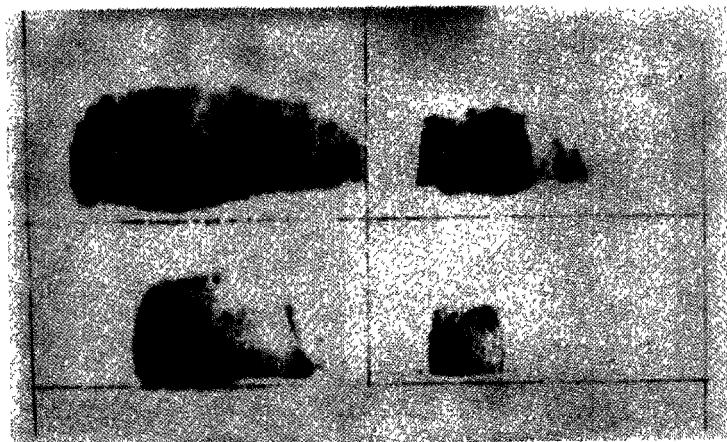
(Drawing II) 종이,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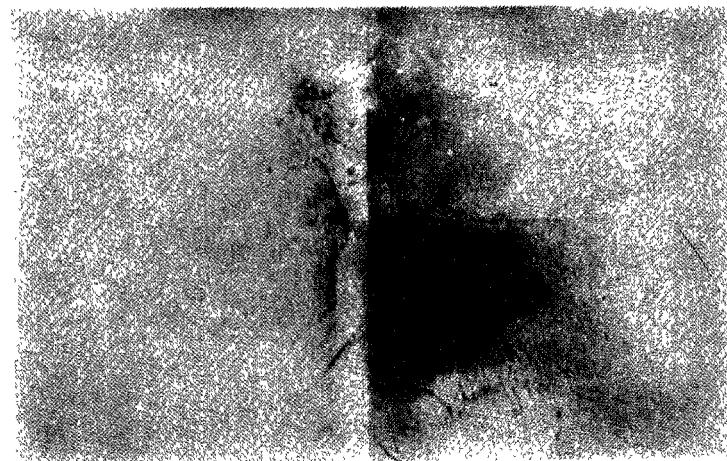
(Drawing III) 종이, 벽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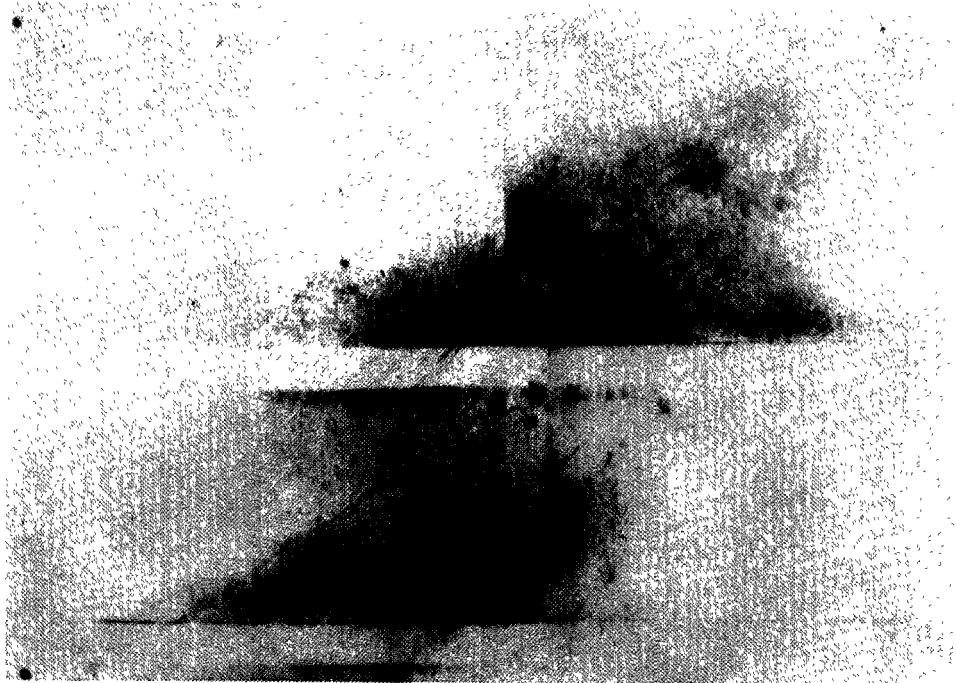
(Drawing IV) 종이,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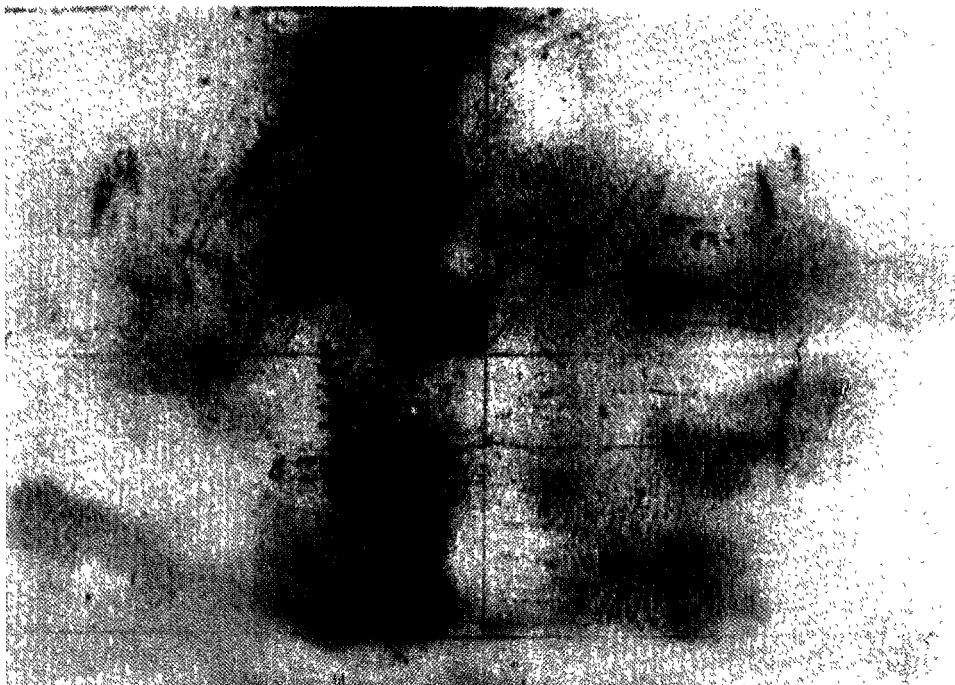
(Drawing V) 종이,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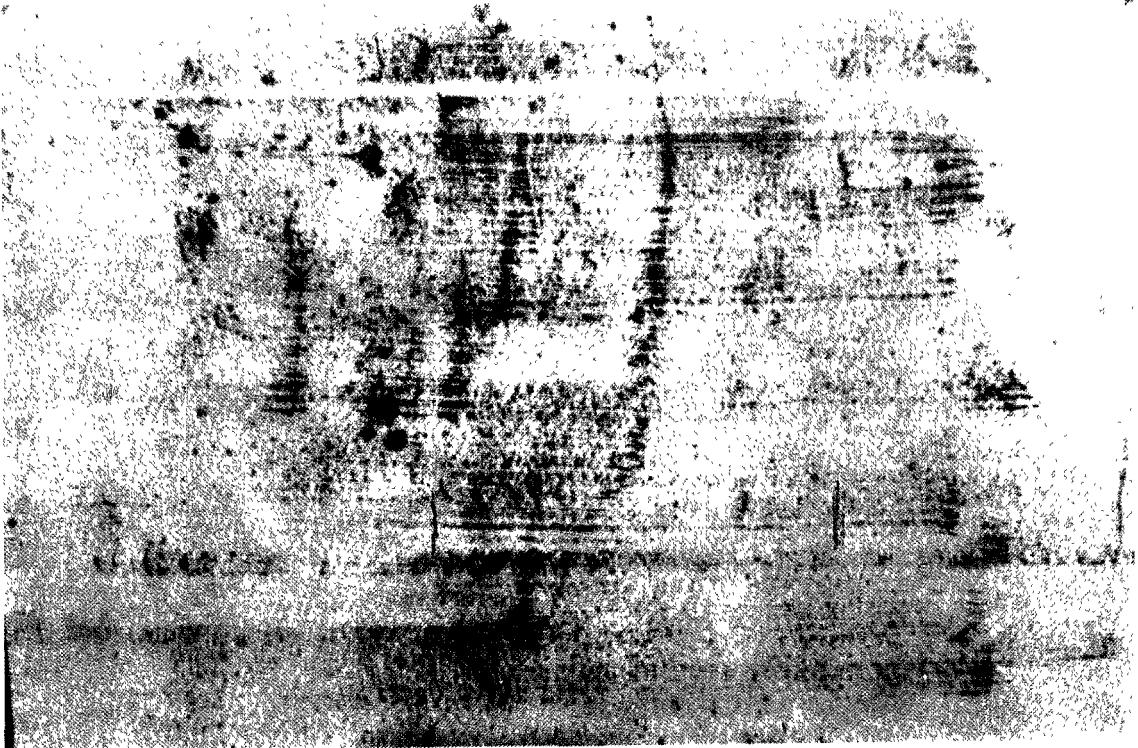
(Drawing VI) 종이, 벽



(Drawing VII) 종이, 먹



(Drawing VIII) 종이, 먹



(Drawing IX) 종이, 벽



(Drawing X) 종이, 벽



(Drawing XI) 종이,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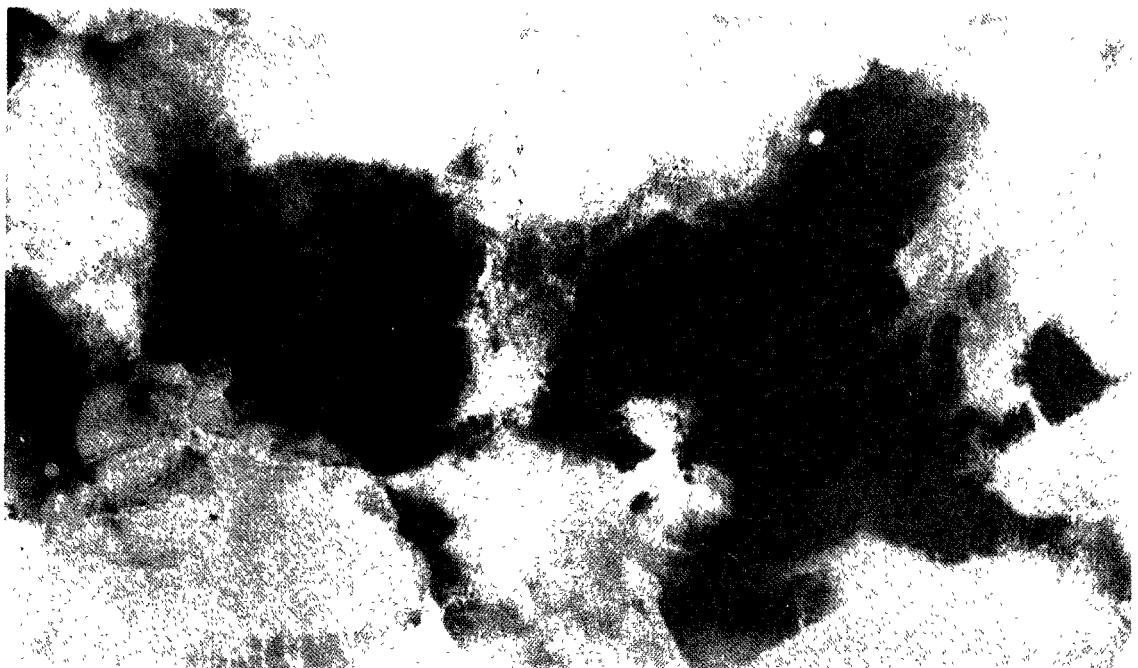
〈歸-I〉 油、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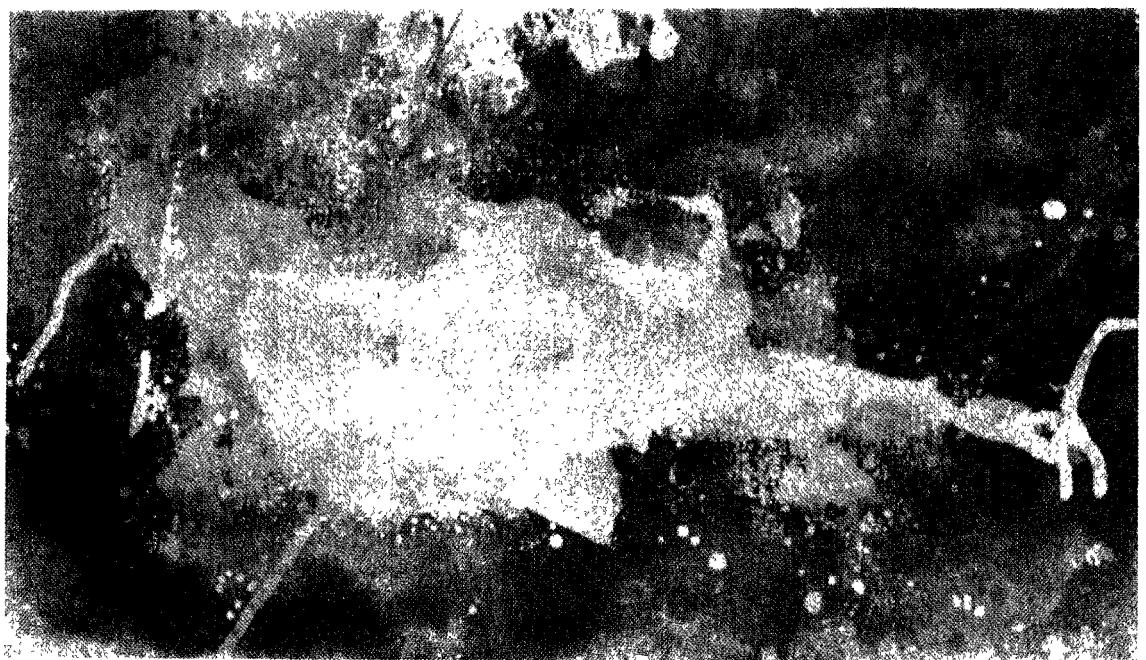
〈歸-II〉図,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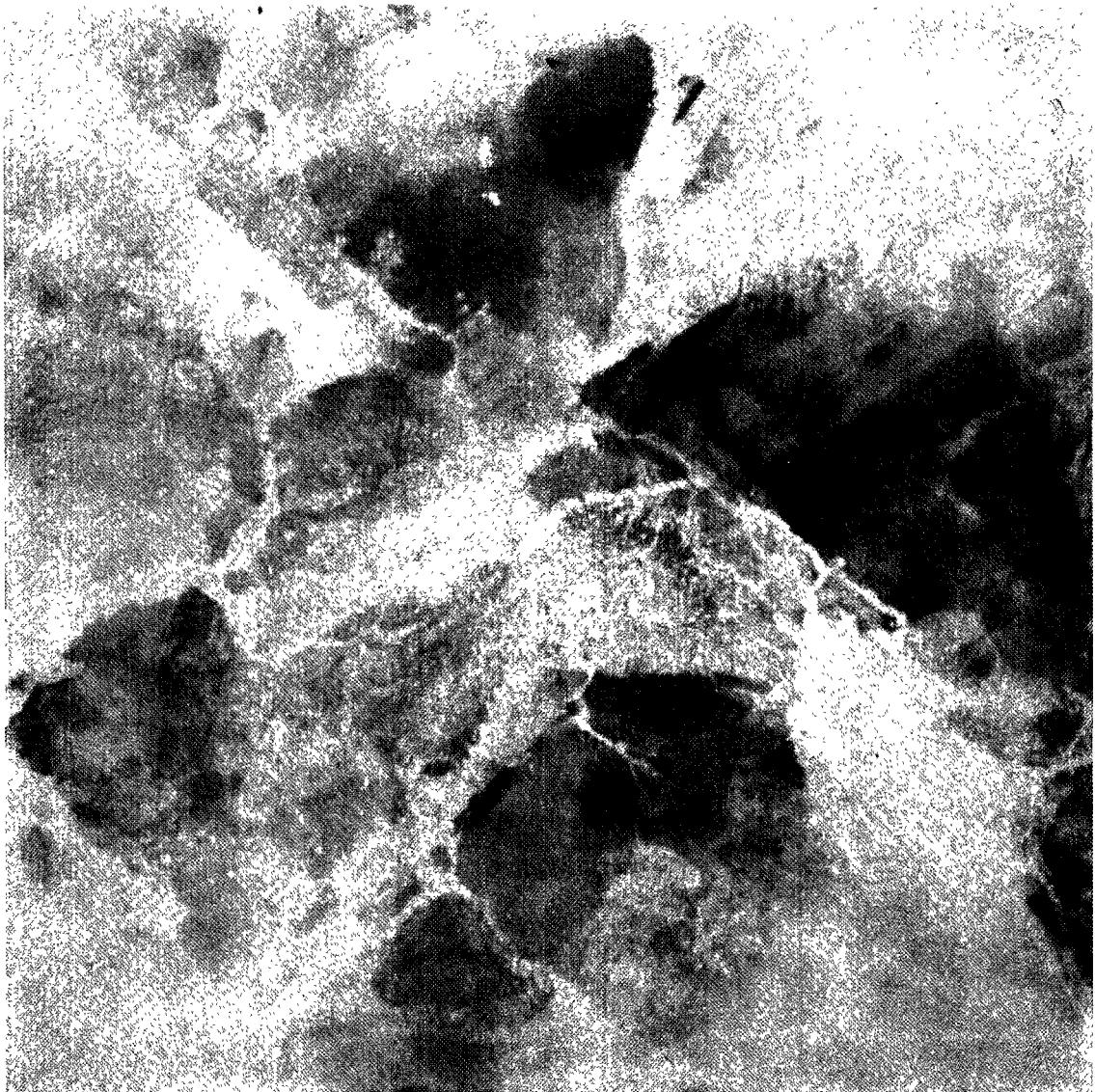
〈歸-III〉図,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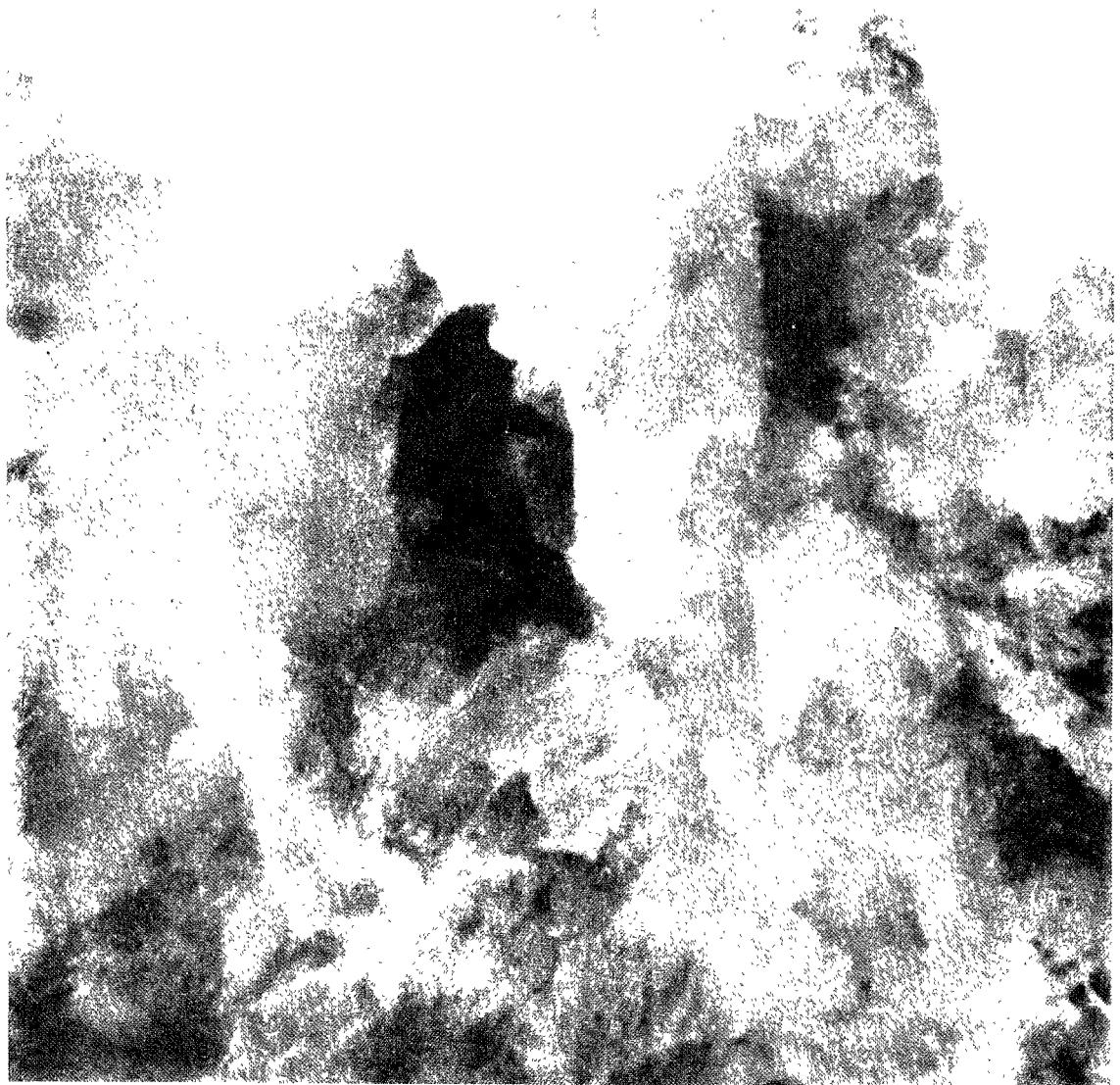
〈歸－IV〉Acril Canvas



〈歸－V〉Acril Canvas



〈歸 - VI〉 Acril Canvas



〈歸-VII〉Acrylic Canvas



〈歸-VIII〉 Acril Canvas